

전남도 농업기술원 장영모씨

'4H후원회 육성 공로' 감사패



장영모 전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  
(사진 오른쪽)가 지난 14일 4H회원 육성에 헌신해 온 공로로 전남도 4H후원회(회장 최영식)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장 지도사는 지난 2001년부터 올 1월까지 6년여 동안 농업기술원 4H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 실시 등 농촌의 전문인력 육성에 헌신해 왔다.  
/송기동기자 song@

대한건설협회광주시회 강영순씨

'60주년 건설의 날' 대통령 표창



강영순 대한건설 협회광주시회 사무처장은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제60주년 건설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 인사

◆광주시 도시공사

▲운영사업단장 박문기 ▲혁신도시사업단장 임성기 ▲경영전략팀장 이순양  
▲감사팀장 송세근 ▲경영본부 기획홍보팀장 김남기 ▲ 회계팀장 김용완 ▲ 분양팀장 박신재 ▲건설본부 개발계획팀장 황성구 ▲ 개발사업팀장 박훈태 ▲ 보상팀장 임창완 ▲혁신도시사업단 관리팀장 박노수 ▲ 개발팀장 박병현  
▲운영사업단 시설운영팀장 송한구 ▲ 영락공원 팀장 권옥주

## 내방

▲조기종씨(광주시 인간문화재 회장)  
한국 인간문화재 13호 화류소목장)

'장애없는 세상 만들기' 기획자 광주 건축가협회 이순미씨

## “인간중심 디자인은 ‘인권 광주’로부터”



“건축을 배울 때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이 개념이 폐자 건축 관계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광주시 서구 생촌동 생촌종합 사회복지관 내 노인정과 장애인 쉼터를 리모델링한 ‘장애없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본보 6월 2일자 1면)의 기획자 이순미(43)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공공봉사위원회의 말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이나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을 지향하는 것으로,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다.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비장애인 등 ‘모두’가 고려 대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모든 시설, 환경 등이 ‘비장애인인 어른’을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처음에 설계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거죠.”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개념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생을 타깃을 삼았다. 원년인 올해에는 전남대와 조선대 건축학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에서는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느낀 건물의 일부를 리모델링 해보고,

직접 시공에도 나선다.

예산 문제로 옮기는 조선대만이 실제 시공에 나설 수 있었다. 전남대 학생들은 설계를 끝으로 6학점짜리 수업을 마쳐야 했다. 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도건설, 우림건설, 유탑엔지니어링, 신우환경,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적개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 만원까지 내놓았다.

이씨는 “항상 돈이 가장 문제”라며 “내년에는 호남대와 광주대도 이 프로

젝트에 참가할 예정인데, 몇 개 대학이 실제 공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프로젝트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결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해놓은 설계가 어떻게 공사장에서 적용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 이 프로젝트의 의의를 풀으면 광주가 인권의 도시라는 점이죠. ‘유니버설 디자인’도 결국 인권과 무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아직 생소한 이 개념을 심는데 광주가 앞장서자는 거죠.”

프로젝트는 현재 20년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모두에게 심어지지 않았다면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상필기자 camus@

/사진=고경석기자 ksgo@

광주일보 신향락 편집국장 등 13명

## ‘한국참언론인 대상’ 수상

한국언론인연합회(회장 서정우)는 18일 제3회 ‘한국참언론인대상’ 수상자로 본보 신향락(사진) 편집국장 등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획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신국장은 ‘조선대 학내 분규’·‘5·18 그후 20년 시리즈’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고 유럽지방자치에 대한 기사로 광주전남 기자협회 대상을 받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29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엘리제홀에서 열린다.

이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논설부문 동아일보 논설실장 이재호 ▲국제부문 연합뉴스 편집부국장 오재석 ▲정치부문 조선일보 정치부장·부국장 김민배 ▲칼럼부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두우 ▲보도사진부문 세계일보 사진부장 차수자 ▲사회부문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김종구 ▲문화부문 (사)한국여기자협회 회장·서울신문 대기자 신연숙 ▲경제부문 KBS 경제과학팀장·부국장 정필모 ▲통일외교부문 MBC 보도본부장 신용진 ▲방송진흥부문 SBS 보도본부장 김진원 ▲시사로운부문 성신여대 교수·MBC 시사집중 진행자 손석희 ▲지역언론부문 대전일보 편집국장 이사 신수용

다니엘 헤니, 美 LA타임스서 대서특필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한국에 간 지 2년 만에 텁스터로 떠오른 미국 출신 혼혈배우 다니엘 헤니(27)의 인기를 대서특필했다. LA타임스는 선데이판인 17일자 연예섹션 ‘캘린더’ 1면과 8면에 걸쳐 서울발 기사로 “서울에서는 커피를 사러가도 비명을 지르는 여성 팬들에게 둘러싸이는” 다니엘 헤니의 이야기를 집중 소개했다.



LA타임스는 헤니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12살짜리 정도밖에 안되고, 한국어로 된 시나리오를 완전히 소화할 수 없으며, 한국적인 감정 표현이 아직 서툴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배우 중 한 사람으로 떠오른 흥미로운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 정명훈씨 아들 정민씨 지휘자 데뷔

한국의 대표적인 마에스토로 정명훈(54)의 막내 아들인 민(23·사진 오른쪽)씨가 오는 8월 지휘자로서 데뷔한다. 정민씨는 부산의 아동 보육시설인 ‘소년의 집’ 관현악단을 지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대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중인 그는 작곡과 지휘로 아예 전공을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꿈꾸어 지휘 레슨을 받으면서 지휘자로서의 꿈을 키워왔으며 현재 소년의 집 관현악단을 조련하면서 수시로 비공개 무대를 갖고 있다.

## 도전정신 심어준 모교에 ‘사랑의 선물’

## 가수 싸이 “병무청 처분 겸허히 수용”



을 전환한 것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지 때문이었다”고 술회했다.

지난 99년 영업직에 뛰어든 그는 7년 만에 1천 168대의 자동차를 판매고를 기록, 2005년 235대, 2006년 264대를 팔아

2년 연속 판매왕에 등극한데 이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08대를 판매해 3년 연속 판매왕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 차장은 최근 중앙초를 방문, LCD 모니터 33대와 42인치 벽걸이 TV 3대 등 1천 3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기증하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정 차장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렵던 초등학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생활을 하면서 의지를 배운 것 같다”면서 “생산직에서 영업직으로 방향

변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혐의가 드러난 가수 싸이가 18일 “군 재입대를 회피하기 위한 행정소송 및 그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싸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잘못인지 모르고 지내온 일이지만, 국가와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뜻에 따르겠다”면서 “검찰의 조사와 병무청의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싸이는 “언론의 보도와 검찰의 조사가 진행된 지금 ‘처음부터 혐의로 갚다’를 걸어리는 후회가 든다”며 담담한 심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3년 동안 퇴근 후에는 부분적으로 음악활동을 병행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싸이는 복무기간 연장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소처분 이후 재입대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 결혼해요”



## ‘英 록스타’ 스튜어트, 26세 연하와 세 번째



영국 록스타 로드 스튜어트(62·사진 오른쪽)가 26세 연하의 모델 출신 여자친구 페니 랭커스트(36)와 세 번째 결혼에 골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해외언론에 따르면, 스튜어트는 16일 이탈리아의 휴양지 포르토파노 리조트 인근의 작은 마을 빌라에서 랭커스트의 부모만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

랭커스트는 흰색 드레스와 흰색 하이힐 차림으로 예식에 참석했고, 스튜어트는 랭커스트에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 후 그들의 19달 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인근 레스토랑으로 향했으며, 곧바로 스튜어트의 고급 요트에 올라 결혼을 자축했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족

▲강정채(전남대 총장)·김명(광주교대 교수)씨 차녀 승희(미국 코네티컷 대학병원 의사)와 심순택씨 차남 상구(미국 변호사)씨 = 23일(토) 오후 1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예식장.

▲김천주(광주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전무이사)씨 장남 강현군 안동혁씨 장녀 미애양 = 23일(토) 오후 1시20분 경복궁웨딩컨벤션.

▲이희일씨 장남 창호군 강민원(광주시 환경자원과장)씨 차녀 지선양 = 23일(토) 오후 1시 예별루션웨딩컨벤션 3층.

##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형술,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접수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 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질제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힐글학교 운영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접수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복성중 제 19회 동창회(회장 김한주) 월례회 = 19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225-5631

▲창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 모임 = 21일(목) 오후 7시30분 광명해물탕, 010-6688-8983

▲복성중 제 19회 동창회(회장 김한주) 월례회 = 19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225-5631

▲조대부고 20회 동창회 모임 = 22일(금) 오후 7시 화랑궁 경식당, 223-7370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22일(금) 오후 6시30분 낙지한마리와 수제비, 011-617-6695

▲서강고 제 8회 동창회(회장 김용식) 모임 = 23일(토) 오후 5시 마스터스관광호텔 3층, 017-617-3985

▲광주 방림초교 총동문회 창립총회 = 23일(토) 오후 2시 모교 강당, 019-601-1898

▲(사)국제질제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힐글학교 운영

## 증진회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청년이회회(회장 이진우) 월례회

= 19